

# SPACE

## ANOTHER WAY OF DISCUSSING LIFE: LIFETHINGS

A New Platform for Multidisciplinary Discussions  
The Biennale for Collective Intelligence  
Eduardo Navarro: The Things that We Know without Words

Manetti Shrem Museum – SO-IL  
House ONE – UNSANGDONG architects

Research Center for NIFS Forest Genetic Resources Dept. – Bae Kicheol + Innovative Design Studio, Inc.  
Gwangalli House – Kim Byungchan + Eidos Architects Group Co., Ltd.

Castle Villages, Rediscovering Urban Habitats Regeneration Project  
Homage to Korean Modern Architecture: '40 years of Architecture'  
A New Way of Viewing Jikji: 'JIKJI, the Golden Seed'







006  
NEWS

022  
BOOK

118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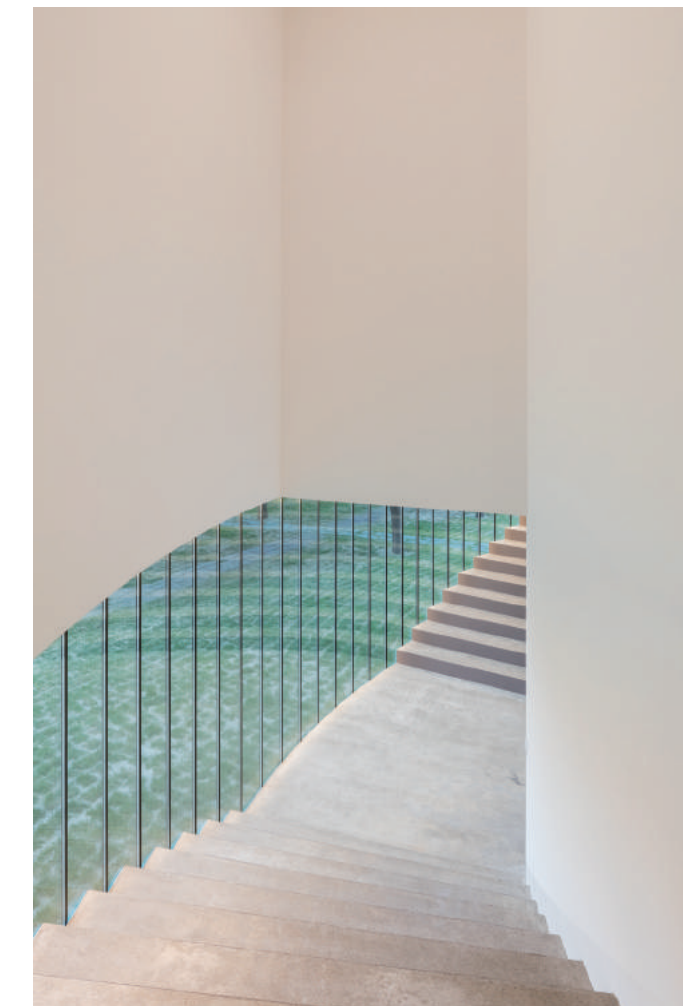
월간「공간」

제51권 제10호 (통권 587호)  
2016년 9월 25일 발행  
1966년 9월 6일 등록 라803호  
정가 18,000원

COVER  
©Kyungsub Shin (front)  
©Iwan Baan (back)

044 Frame

삶을 말하는 다른 방식: 삶것  
Another Way of Discussing Life: Lifethings



©Kyungsub Shin

046 Essay  
만든지도 아직\_양수인  
The Maker Does Not Yet\_ Yang Soo-in

052 Project  
원불교 화랑대 교당  
The Hwarangdae Won-Buddhist Temple

056 Project  
고개집  
Go-Gae Jip

060 Project  
기억의 벽  
Wall of Remembrance

062 Project  
이야기그네  
lyagi Swing

063 Project  
한화이글스 팬봇  
Hanhwa Eagles Fanbot

064 Critique  
틀린 음은 없다: 양수인 작업의 프로세스와 우연성\_존 홍  
No Wrong Notes: Contingency and Process in the Work of  
Yang Soo-in\_ John Hong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  
새로운 역사가  
탄생합니다.

형태와 기능의 완벽한 조화를 이뤄낸  
선구자들이 선택한 이 시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건축과  
디자인의 우아함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그 이상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로렉스는 단독 파트너 및  
공식 타임피스로서 제15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과  
함께합니다.



CELLINI DATE  
IN 18 CT WHITE GOLD

ROLEX



베니스, 이탈리아  
2016년 5월 28일-11월 27일



**PUBLISHER & EDITOR**  
황용철 Hwang Yongchul

**ADVISORY COMMITTEE**  
피터 쿡 Peter Cook  
피터 아이젠만 Peter Eisenman  
이소자키| 아라타 Isozaki Arata  
로버트 아이비| Robert Ivy

**EDITORIAL BOARD**  
이용우 Yongwoo Lee  
김광현 Kim Kwanghyun  
김선정 Sunjung Kim  
김찬중 Kim Chanjoong  
한은주 Han Eunju

**SPACE ACADEMIA CHIEF EDITOR**  
정만영 Mann-Young Chung  
김성홍 Sung Hong Kim  
이상현 Sanghun Lee

**EDITOR-IN-CHIEF**  
박성진 Park Sungjin  
(modori@spacem.org)

**EDITOR**  
우현정 Woo Hyunjung  
(jung@spacem.org)  
박계현 Park Gye Hyun  
(gyehyun@spacem.org)  
전충현 Harry Jun  
(harry@spacem.org)  
공을채 Kong Eulchae  
(eulchae@spacem.org)  
윤솔희 Yoon Solhee  
(solhee@spacem.org)

**GUEST EDITOR**  
심영규 Shim Youngkyu  
(shim091@gmail.com)  
심미선 Jane Misun Shim  
(creatif.jane@gmail.com)

**DESIGNER**  
최승태 Choi Seungtae  
(keysersoze@nate.com)  
고인수 Ko Insu  
(flos@spacem.org)

**PHOTOGRAPHER**  
남궁선 Namgoong Sun  
(viewpt@naver.com)  
윤준환 Yoon Joonhwan  
(baramm76@hanmail.net)  
신경섭 Kyungsub Shin  
(shinkyungsub@gmail.com)  
에프라인 멘데스 Efraín Méndez  
(info@archframe.net)

**ENGLISH LANGUAGE EDITOR**  
나탈리 페리스 Natalie Ferris  
(nlferris25@googlemail.com)

**TRANSLATOR**  
김석원 Kim Seokwon  
(seokwon.kim@hotmail.com)  
노성자 Ro Seongja  
(seongjaro@gmail.com)  
권태준 Kwon Taejune  
(tjunekwon@gmail.com)  
김태호 Kim Taeho  
(rlaxoghsla@gmail.com)  
이기는 Rhee Kieun  
(rhee.kieun@gmail.com)  
지주현 Jee Joohyun  
(tarzanzeeb@gmail.com)  
주지훈 Christopher Jeehoon Ju  
(christopher.jju@gmail.com)

**KOREAN LANGUAGE PROOFREADER**  
하명란 Ha Myungran  
(totoami@naver.com)

## 024 Art Prism



Courtesy of Shanghai Project



Courtesy of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Ji-A Lee

### 024 Exhibition

새로운 학제간 토론의 플랫폼: 100년 미래를 예고하는 아이디어 전시장\_이용우  
**A New Platform for Multidisciplinary Discussions:  
An Idea Showroom Envisioning the Next 100 Years\_ Yongwoo Lee**

### 030 Exhibition

스펙터클에서 벗어난 비엔날레, 집단지성의 장이 되다\_우현정  
**The Biennale for Collective Intelligence\_ Woo Hyunjung**

### 038 Talk

에두아르도 나바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_우현정  
**Eduardo Navarro: The Things that We Know without Words\_ Woo Hyunjung**

## 070 Project



©Iwan Baan



©Namgoong Sun

### 070

마네티 셰렘 뮤지엄 - SO-IL  
**Manetti Shrem Museum - SO-IL**

### 078

하우스 원 - 운생동건축사사무소  
**House ONE - UNSANGDONG architects**

HERMÈS BY NATURE





AD MANAGER

김한욱 Kim Hanwook  
(khw@spacem.org)  
김진부 Kim Jinboo  
(citizennews@naver.com)  
박상준 Park Sangjun  
(pj6060@naver.com)

MARKETING MANAGER

허완 Hur Wan  
(hurwan0412@hanmail.net)  
한경화 Han Kyunghwa  
(hanban@spacem.org)

ADMINISTRATIVE MANAGER

유창림 Lyou Changlim  
최윤정 Choi Yunjung

BOARD OF DIRECTORS

황응철 Hwang Yongchul  
이상림 Lee Sangleem

PRINTING

삼성문화인쇄 Samsung Moonhwa  
Printing Co., Ltd.

(주)CNB미디어 공간연구소  
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연희동 353-109)  
SPACE magazine, 52-20 Yeonhui-ro,  
Seodaemun-gu, Seoul, Korea 03781  
Tel 82-2-396-3359  
Fax 82-2-396-7331  
URL www.spacemagazine.org  
E-mail editorial@spacem.org

월간「공간」은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Contents Copyright©2016 All rights  
reserved by SPACE magazine.

• Listed in Thomson Reuters (A&HCI)  
and Korea Citation Index



086 Critique



@Park Yongchae



@Yoon Joonhwan

086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 -  
배기철+(주)건축사사무소 아이.디.에스 / 글 조남호, 임영환  
Research Center for NIFS Forest Genetic Resources Dept. -  
Bae Kicheol + Innovative Design Studio, Inc. / written by Cho Namho,  
Lim Yeonghwan

092

광안리 주택 - 김병찬 + (주)에이도스 건축사사무소 / 글 이지은  
Gwangalli House - Kim Byungchan + Eidos Architects Group Co., Ltd.  
/ written by Lee Jieun

098 Report



Courtesy of On Space Institute



Courtesy of Seoul Museum of History



Courtesy of JIKJI Korea

098

성곽마을, 도심 주거지 재생사업의 재발견\_ 윤솔희  
Castle Villages, Rediscovering Urban Habitats  
Regeneration Project\_ Yoon Solhee

106

우리 근대건축의 오마주: <건축 40년, 시대를 담다>\_ 박길룡  
Homage to Korean Modern Architecture: '40 years of Architecture'\_  
Park Kilyong

112

직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직지, 금빛 씨앗>\_ 전종현  
A New Way of Viewing Jikji: 'JIKJI, the Golden Seed'\_ Harry Jun

한층 더 다이내믹한 완성.

2017년식 The C-Class.

탁월한 기술과 시대를 앞서가는 감성으로  
더욱 다이내믹하게 돌아온 2017년식 C-Class.  
당신에게 다시 한 번 놀라움을 안겨드립니다.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웹사이트  
서울: 강남 (02)513-3000 강남대교 (02)575-5000 강북 (02)6678-7500 강서 북동 (02)6355-0000 동대문 (02)2215-2233 방배 (02)532-3421 삼성 (02)550-4000 서초 (02)550-5000 서초 청계 (02)6007-0100  
송파 (02)343-4000 유산 (02)709-3800 영등포 (02)6123-1400  
경기/인천: 분당 서현 (031)710-8000 분당 정자 (031)786-4000 수원 (031)740-5000 안양 명초 (031)689-8900 일산 (031)907-7777 의정부 (031)878-3333 인천 (032)770-8800 인천 송도 (032)860-3300  
부산: 강제 (051)820-6000 금정 1688-2369 남천 (051)760-2000 해운대 1688-2369 화명 (051)678-7000  
원주 (033)741-8800 대전 (042)673-3421 대전 유성 (042)602-2000 청양 (041)620-7000 청주 (043)200-9000 광주 (063)226-8000 군산 (063)454-8000 순천 (061)900-1500 광주 (062)226-0001  
대구 (053)639-9000 포항 (054)256-9001 마산 (055)296-1004 진주 (055)757-8118 울산 1688-2369 제주 (064)800-9800  
www.mercedes-benz.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심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 배출량: 144g/km  
C 200 4 (배기량: 1,598cc, 공차중량: 1,595kg, 자동7단), 복합연비: 16.3km/ℓ (도심연비: 14.4km/ℓ, 고속도로연비: 19.4km/ℓ), 등급: 1등급, 복합CO2 배출량: 120g/km  
C 220 4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628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심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등급: 1등급, 복합CO2 배출량: 111g/km  
C 220 4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778kg, 자동7단), 복합연비: 14.6km/ℓ (도심연비: 12.7km/ℓ, 고속도로연비: 17.7km/ℓ), 등급: 2등급, 복합CO2 배출량: 130g/km  
C 250 4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ℓ (도심연비: 13.7km/ℓ, 고속도로연비: 18.4km/ℓ), 등급: 2등급, 복합CO2 배출량: 126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Mercedes-Benz Catalogue를  
다운 받으세요



## 에두아르도 나바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 Eduardo Navarro: The Things that We Know without Words



Photographed by J.A. Lee

Eduardo Navarro, *Horses Don't Lie*,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 Performance, Nanjicheon Park, Seoul/ Choreographer: Kim Myung shin, Performers: Jang Hongseok, Hyun-sang Jo, Kim Eunyoung, Song Myoung Gyu, Lee Jung Min, Lee Je sung

늦은 오후 넓게 펼쳐진 초원 위로 다섯 마리 말이 느린 걸음을 옮긴다. 가까이 다가서 보니 말의 탈을 쓴 사람이다. 이번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난지천공원에서 진행되는(9월 3일, 10월 16일) 에두아르도 나바로의 ‘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자폐아들이 동물과 교감하며 감각을 키우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치료법에 영감을 받아 2013년 시작되었다. 그는 한계를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가 당연시하는 제도, 이치, 논리의 허구성을 꼬집는다. 동물이 언어가 아닌 이미지로 소통하는 것처럼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본능적인 행위를 통해 평범함과 정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퍼포먼스의 참여자, 그리고 관객이 다른 세계로 탐험할 수 있도록 낯선 풍경을 만들어내는 나바로의 작업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심리와 그 변화의 과정 한가운데 서 있다.

인터뷰 우현정 | 자료제공 작가,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별도표기 외)

**우현정(우): ‘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자폐증과 연관된 작업이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에두아르도 나바로 (나바로): ‘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자폐증과 관련된 유일한 작업이다. 나는 사람들이 치유의 한 형태로써 살아있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 농장에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승마치료라고도 알려진 말을 타는 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제한된 언어 능력을 가진 의사소통 불능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법이다.

비엔날레를 위한 리서치를 하던 중, 현장 견학을 나갔고 (메르코수르 비엔날레가 열리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 앞, 한 섬에서 1970년대에는 감옥이었으나 지금은 폐쇄된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실제로 동물들을 데려가서 섬을 농장으로 바꿔놓으려던 구상은 실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르투 알레그리는 강 하구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해안선에서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실현하는 데 계속 관심을 두었다. 그 섬을 방문했던 경험은 공감, 고립, 거리와 접촉에 관해 많은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진짜 동물들에 대한 대안으로 동물로 변장할 수 있는 무용가들을 찾는 가능성을 고려했다. 동시에 아주 우연하게도 나는 미국의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의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랜딘은 자신의 책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에서 자신의 자폐증이 어떻게 동물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는지 설명한다. 이 책을 보며 나는 무용수들이 단순히 신체적으로 말처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흉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국 무용수들은 언어를 지우고 그림으로 생각하게 하는 일종의 건기명상을 수행함으로써 심리적 연결 사태에 도달했다.



Eduardo Navarro, *Horses Don't Lie*,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 Performance, Nanjicheon Park, Seoul/ Choreographer: Kim Myung shin, Performers: Jang Hongseok, Hyun-sang Jo, Kim Eunyoung, Song Myoung Gyu, Lee Jung Min, Lee Je sung

**우: 자폐증의 어떤 측면이 이 프로젝트를 하게 만들었고, 어떤 점을 퍼포먼스에 반영했는지 말해달라.**

나바로: 이 작업을 할 때, 포르투 알레그리의 자폐증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그는 자폐증을 초기에 발견하는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고 자폐증의 매우 독특한 특성을 설명해주었다. 그는 템플 그랜딘이 내 작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그랜딘과 동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그랜딘은 모든 동물의 행동은 단어적 사고가 아니라 시각, 청각, 후각과 같은 감각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동물의 이와 같은 초감각은 언어의 부재와 연관되고 그랜딘이 그랬듯이 추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랜딘이 집을 떠날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봐왔던 집의 이미지가 펼쳐진다. 마치 구글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랜딘이 언급했듯, 중요한 것은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훨씬 예민하다는 것이다. 그랜딘은 또한 무엇이 정상인가에 대한 헤게모니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할 수 있다는 사례의 표본이었다. 그랜딘은 어릴 때부터 인생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보게끔 영감을 받아왔다.

**우: ‘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에서 말의 복장을 어떻게 생각해냈는가?**

나바로: 이 슈트는 일종의 말의 인공 기관 같은 것이다. 이 장치는 당신이 다른 정신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매개체에 더 가깝다. 작업하면서 정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관객이 자신이 보는 것이 말인지 무용수인지 구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퍼포먼스가 시작되면 관객들은 육상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므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오직 시각으로만 그들과 접촉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이런 매개체를 창조하는 과정이 있었다. 인형사가 맨 처음에 나무로 된 완전한 구조물을 만들었고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뼈대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영혼이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일종의 미완성 상태, 그 자체로 남겨두기로 했다.

**우: ‘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시간 기반의 퍼포먼스로 그것이 펼쳐지는 장소에 따라 지속 시간이 달라진다. 이 작업에서 시간이 지나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바로: 퍼포먼스가 해질 때 끝나기를 바랐고, 자연이라는 시계를 이용하여 절대로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해는 항상 다른 시간에 저물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대략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시간을 늦추려고 노력했고 이로써 인지 감각이 확장되도록 했다. 이 작업에서 시간과 거리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객의 내적 시간이 변경될 때, 그들은 작업을 진짜 속도와 길이가 아닌 불확실한 상태로 기억한다. 작업은 꿈처럼 변하고 이 부분은 내게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우: 이 작업이 난지천공원에서 펼쳐질 때 다른 곳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가? 왜 이 장소를 택했는지 알려달라.**

나바로: 자연 속에서 실험적인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지천공원을 선택했다. 포르투 알레그리에서의 작업을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말에 다가갈 수 있다면 흥미로운 것이라 생각했다.



난지천공원은 무대 위의 공간이 아니어서 완벽한 장소였다. 인간 형상을 한 말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두는 것이 이 작업을 초현실적으로 만든다.

**우: 무용수들은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하지 못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몸이 인간이 하는 행동과 전혀 다른 안무를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 부분이 당신의 작업을 더욱 흥미롭게 느끼게 한다.**

나바로: 인간 행동과 안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무라는 틀에서 벗어난 더 커다란 형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늘로부터의 지시’의 무용수들은 구름과 자신의 행위를 맞추었고, ‘번치 않는 알렉스’는 거북이의 시간 감각과 연결됐다. 그러면서 무용수들은 구름이나 시간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말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에서의 비안무는 집단 동물 행동에 의존한다. 나는 무용수들을 일종의 감지할 수 없는 움직임, 극단적으로 느린 움직임과 연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만약 작업이 일종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조건에 이끌린다면 그럴 때마다 매번 같지 않은 퍼포먼스가 될 것이다. 안무의 부재는 퍼포밍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 작업에서 무용수들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움직인다면 더 유기적인 작업이 된다고 생각한다. 작업은 그 자체의 삶을 갖는다.

**우: 당신은 종종 ‘명상’이라는 단어로 작업을 설명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다.**

나바로: 명상은 마음을 더 넓은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적 수양처럼 명상은 대상을 전체적으로 보게 해준다. ‘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서 사람들은 이 인간 형상을 한 말을 특정한 시간대에 보게 된다. 오래 바라보면 볼수록 이 말들은 관객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듯 느껴진다. 마치 말 또한 관객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명상은 내 작업에서 지각으로 변환되는 이러한 종류의 감정적 기술과 연결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우: 작업 전반을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퍼포먼스를 이끌어가는 주체자와 다른 하나는 도구인데 후자는 무용수가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다. 도구 자체도 언뜻 보기엔, 아름다운 오브제로서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나바로: 도구는 도구일 뿐이고, 내 작업 또한 수단 또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일단 무용수가 그 장치를 착용하면 더는 자신이 아니게 되고 그의 몸은 내 작업의 일부로써 이용된다. 물론 작품 역시 작품 그 자체가 아니게 되고 무용수의 몸에 의해 이용된다. 나는 작업이 아름다움의 차원을 넘어서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도구를 착용하고 나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초월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 어디에서 작업의 아이디어를 얻는가? 당신만의 리서치 방법을 공유해달라. 새로운 장소나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얻는가? 이번에 서울을 방문하며 다음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나바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하는데, 너무 스스로 의식하게 되는 것을 꺼리는 편이다. 여행은 항상 영감을 주고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게 하며, 다시 어린 아기가 되는 것과 같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나는 한국의 고깃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테이블을 좋아했다. 종종 게임에 관한 작업을 구상하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요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고깃집 테이블이 게임 작업을 발전시키는 데 풍부한 소스가 될 것 같다.

**우: 당신의 작업을 언어로 설명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당신의 작업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나바로: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작업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더욱 일관성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내 작업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히려 기쁘고 그런 반응이 나한테 더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관객이 “에두아르도 나바로가 한 작업이야”라고 순식간에 이해하기보다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쪽을 더 선호한다.

As it reaches late afternoon, five horses walk slowly on the plains. When I approached and looked closer, I see that they are humans in horse suits. A performance by Eduardo Navarro, *Horses Don't Lie* in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 'NERIRI KIRURU HARARA' was first introduced in 2013, the result of connections made to animal therapies for autistic children to communicate with animals in order to develop their sensory interactivity with the outside world. Navarro sees limitations as possibilities not found, and points out the fictiveness of the logic and systems of performance that we all take for granted. In the way that animals communicate with images and not languages, he suggests a new perspective on what is normal or conventional through analyzing our instinctive behaviours. The work of Navarro, which creates a strange landscape in which the performers and audience participate in order to explore another world. It draws upon those reaches of our mentality that perceives disconnected from the directives of language. interviewed by **Woo Hyunjung** | materials provided by **the Artist,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unless otherwise indicated)

**Woo Hyunjung (Woo): *Horses Don't Lie* is related to the subject of autism. Can you remember the very first moment that this project began?**

Eduardo Navarro (Navarro): *Horses Don't Lie* is the only work I have done which I refers to autism. I was interested in the idea of an artwork that was simultaneously an animal farm, where one could go and interact with live animals as a form of therapy. I already knew of some existing cases that involved riding horses, which is known as equine therapy. This is oriented towards children who have limited language abilities and an incapacity to communicate. So while researching for the biennial we were taken on a field trip and visited a closed 1970's prison located on an island in front of Porto Alegre (where the Mercosul Biennial took place). The idea of actually taking animals to that island and transforming it into a farm was, however, impossible. That said, I was still interested in doing something that you could see from the shoreline, since Porto Algre is located in front of a river. So the visit to that island was very inspiring in terms of understanding empathy, isolation, distance and touch. I then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finding dancers who could effectively transform into these animals, perhaps as an alternative to hiring real animals. At the same time, purely by chance, I got to know the work of Temple Grandin. I purchased her book *Thinking in Pictures*. In that book, she explains how her autism allowed her to better understand animal behaviour. Then I thought perhaps the dancers could emulate the horses' way of thinking rather than simply acting with the physical manner of horses. In the end the dancers approached that emphatic



Eduardo Navarro, *Horses Don't Lie*, Horse clothes and performance instructions, Time based performance, 2013

connection by performing a kind of walking meditation that would allow them to think in pictures and to cancel language.

**Woo: Do you usually have such a well-knit plot for a performance? And why do you prefer to use the term dancer rather than performer?**

Navarro: Not really, I discover my work as I am doing it. I have an intuition of what it should be about, but then there is an explorative process and I need everyone to adjust to this period of experimentation. I work with dancers because they have taught me to forget about a given end result and an audience. I like to think dancers can connect with a mindfulness state of being. So since this work was about canceling language it was perfect to explore that in the bodies of contemporary dancers.

**Woo: How do you approach autism and what perspectives on autism drew you into making an artwork?**

Navarro: While I was developing this work, I contacted a specialist in autism from Porto Alegre in Brazil. He explained his research to me, which centred on detecting autism at the earliest stages, and helped me to understand some of the really particular qualities of autism. He not only told me how Temple Grandin could relate to my work, but he also he explained her connection to animals. Grandin has noted that animals do not think in words of course, but that all animal behaviours are affected by senses such as sight, hearing and smell. This hyper sensibility of animals has to do with

the lack of language and of course the impossibility of creating abstract thoughts, yet, what she recognized is that she also does not own a capacity of thinking in an abstract way. When she thinks of a house, she sees in her head the many examples of houses she has seen, and in that way she thinks like Google. What is important, and what Grandin also mentioned, is that children with autism are in many ways much more sensitive compared to those without it. She has also questioned the hegemony of what is to be normal. She is the example of a person with autism that could be much more intelligent than someone who does not have autism. From an early age, she was inspired to rethink the possibilities for her life.

**Woo: How was *Horses Don't Lie* developed? How did you come up with the idea of the horse suit?**

Navarro: I think the suit is some sort of prosthesis of a horse, and therefore I see it more like a vehicle that helps you reach a different mental state. One of my priorities was that from a distance the viewers would not be able distinguish whether what they saw were dancers or horses. The performance occurred and the audience was only able to see it from far way, they could not reach the horses because you could only see it from a rooftop. They could only touch them with their eyesight. So while we were testing different ways of creating these 'vehicles' the puppet master who helped built the horses originally produced a wooden structure that was going to be completely but then I saw the wooden structure and I loved the skeleton aspect of it and decided to leave it as it was, kind of unfinished so a ghost could live in it.



Eduardo Navarro, *Instructions from the Sky*, Frieze Projects, New York, 2016



**Woo: *Horses Don't Lie* is a time-based performance and lasts one or two hours according to each project, as it happens at different location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your work?**

Navarro: I wanted the performance to end at sunset and use a natural clock that never repeated it self, so the sunset was all ways at a different time. The performance was three-hours long, approximately from 4pm to 7pm. The audience could effectively see the show as long as they wanted to see it, and had the power to leave and come back again as many times as they wished. I was trying to slow time down, and in this way perception opens. The distance in this work played an important role, because distance and time need each other. When the audience's internal clock is modified, they remember the work with the uncertainty of not remembering its true velocity and duration. It becomes like a dream and that is crucial for me.

**Woo: Can you tell me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Horses Don't Lie* in Nanjicheon Park and the original version and why you selected this spot?**

Navarro: I chose the Nanjicheon Park because it's important that the work continues to be experimental in its nature. Reproducing the location of Porto Alegre is impossible that's why I thought it could be interesting to see if people approach the horses as close as they wanted. This park was perfect because it did not over stage the work. It made it surreal to have the human horses in a common public space.

**Woo: Your dancers must experience unpredictable psychological changes during the performance. Their bodies are transformed following the scores and choreography into modes of being very different from human behaviours.**

Navarro: Yes. They are very different. Because they connect with a larger form of choreography. For example, *Instructions from the Sky* of dancers were synchronized with clouds and *Timeless Alex* is linked with a turtle's perception of time. Then the choreographers are the clouds or even time itself. The non-choreography in *Horses Don't Lie* is reliant upon group animal behaviour. I was trying to make the dancers connect with a sort of imperceptible movement, extremely slow. So if the work was guided by some sort of unpredictable natural conditions, it would never be the same each time it was activated, and this lack of choreography would never be right or wrong in terms of performing. I think the work becomes more organic if it is guided by something larger than the dancers that I don't control, and then it has a life of its own.

**Woo: You mentioned 'meditation' when describing the nature of your work.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is in detail?**

Navarro: Alright. Meditation helps one connect with a larger state of mind, such as in spiritual practices, as it allows you to see things holistically. I want people to see these human horses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in *Horses Don't Lie*. The more they see them, the more they feel like these horses 'speak' back to them, as if the horses are watching them too. Meditation is a tool in my work that helps me connect with this sort of emotional technology that transforms perception.

**Woo: Your works consist of two parts. One is focused on the creator, such as a person or animal, and the other is on the tools, which help creators to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else. Speaking of tools, they sometimes appear in your work like artworks or beautiful objects.**

Navarro: I think the work is a tool, but it is more like

a vehicle. Once you put them on, you are no longer yourself, your body is being used by it and vice versa. I hope the artwork itself is more complex than beauty, but I think the looks of these tools should allow you to transcend how they looks once you have them on.

**Woo: How do you get your ideas and do you have any research methods? Are you stimulated by different cultures during your travels? Did you get any inspiration from Seoul for your next projects?**

Navarro: I am not really sure how the process of finding ideas occurs. I deliberately do not pay too much attention to it, because I'm afraid of becoming too self-aware. Traveling is always very inspiring and communicating in new languages is like being a baby again. While I was in Seoul I loved sitting around the Korean barbecue table; I have been working for sometime on a game that you eat as you're playing it and these barbecue tables where people cook their own food and spend time together has been a very rich experience for me.

**Woo: Performance is hard to archive in order to sustain its own operational context. How do you archive your works?**

Navarro: I just take photos. I prefer not to film the works. If I film them I feel as if I am destroying them. So I usually just archive photographs of the process, text I wrote, web links, and drawings of the process.

**Woo: Can you summarize your works in a simple sentence?**

Navarro: It's really hard to say it in one sentence; the more works I do, the more everything becomes coherent. I'm glad when people don't understand my work ? that's better to me. I prefer people to say 'what is this?', rather than saying 'Look, an Eduardo Navarro!'.



Eduardo Navarro, *Timeless Alex*, Time based performance, 2015



Courtesy of Pascal Perich



Eduardo Navarro, *Volcanic Poem*, 2014

Courtesy of Fundación Municipal Bernal de Ciencia/NDP  
Photographed by Paul Navarrete

**에두아르도 나바로는** 1979년생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활동한다. 그의 주요 개인전으로는 〈옥토피아〉(뮤제오 타마요 현대미술관, 멕시코시티, 2016), 〈궤도〉(UTDT, 부에노스아이레스, 2013), 〈메르코수르 법률회사〉(파에나 아트센터, 부에노스아이레스, 2012) 등이 있다. 나바로의 작품은 뉴뮤지엄 트리엔날레 〈관객을 돌려쎄라〉(뉴욕, 2015), 샤르자 비엔날레 〈과거, 현재, 가능한 것들〉(2015), 〈우리, 외부인들〉(e-플럭스, 뉴욕, 2014), 쿠엔카 비엔날레 〈돌아가라〉(2014), 메르코수르 비엔날레 〈날씨허가〉(포르투 알레그리, 2013), 상파울루 비엔날레 〈향해할 수 있는 한 컵의 바다가 늘 존재한다〉(2010), 메르코수르 비엔날레 〈외침과 듣기〉(포르투 알레그리, 2009) 등에 소개되었다.

**Eduardo Navarro** was born in 1979 in Buenos Aires, Argentina, where he currently lives and works. His main solo exhibitions include: 'OCTOPIA', Museo Tamayo, Mexico City; 'Orbita', Ditella University (2013) and 'Estudio Jurídico Mercosur', Faena Arts Center (2012), both in Buenos Aires. His work has appeared in exhibitions including 'Surround Audience', the New Museum Triennial, New York; 'The Past, The Present, The Possible', Sharjah Biennial, UAE (both 2015); 'We, the outsiders', e-flux, New York; 'Ir para Volver', Cuenca Biennial, Ecuador (both 2014); 'Weather Permission', Mercosul Biennial (2013); 'There is always a cup of sea to sail in', São Paulo Biennial (2010); and 'Screaming and Hearing', Mercosul Biennial (2009). His current exhibitions include 'Incerteza viva' at the São Paulo Biennial, Brazil 2016 and 'HERIRI KIRURU HARARA' at the SeMA Biennale, Seoul, Korea.



# SPACE ACADEMIA

## SPACE 아카데미

### 공간 건축 이론 연구 섹션

건축 이론 연구 섹션 'SPACE 아카데미'는 건축을 바라보는 사고의 날을 버리면서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온 본지의 오랜 전통을, 보다 긴 호흡으로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섹션입니다. 아카데미아는 우리의 지적 인식을 새롭게 만들고 새 지평을 열어젖힐 담론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아카데미아는 형식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허한 논문이 아니라, 시대의 지적 역량을 가름할 수 있는 높은 품격을 요청합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vmspace.com>) 참고

\*제출 및 문의: [editorial@spacem.org](mailto:editorial@spacem.org), 02-396-3359

### SPACE Research Section on Architectural Theory

'SPACE Academia' is the Architectural theory research section of SPACE. The section serves to introduce academic papers that enrich and expand the legacy of SPACE, in its search for future directions in ways of thinking about architecture. SPACE Academia looks forward to the emergence of new discourse that can open up new horizons, and renew contemporary intellectual perceptions. SPACE Academia cordially invites the submission of academic papers of a high standard that can diagnose the intellectual potential of our times.

\*Please refer to the website (<http://www.vmspace.com/eng>) for further information.

\*Inquiries & submission: [editorial@spacem.org](mailto:editorial@spacem.org), +82-2-396-3359

## SPACE Academia Editorial Board

- 편집위원장: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 이상현(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정만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편집위원: 강혁(경성대학교), 김현섭(고려대학교), 박진호(인하대학교), 피터 블룬델 존스(영국 셰필드대학교), 송하엽(중앙대학교), 마크 자르롬벡(미국 MIT), 장용순(홍익대학교), 정인하(한양대학교), 정현태(미국 리하이대학교), 조성용(광운대학교), 최원준(숭실대학교), 존 페포니스(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황보봉(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 헤 키앙(싱가포르국립대학교), 마크 한치만(미국 네브라스카-링컨대학교) \*이름은 성 순으로 정렬

• Chief editor: Mann-Young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anghun Lee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Konkuk University), Sung Hong Kim (University of Seoul)  
• Editorial board: Peter Blundell Jone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Yongsoo Chang (Hongik School of Architecture), Sungyong Cho (Kwangwoon University), Won-joon Choi (Soongsil University), Chye Kiang He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Mark Hinchman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Alfred B. Hwangbo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rk Jarzombek (MIT), Hyun-Tae Jung (Lehigh University), Inha Jung (Hanyang University), Hyuk Khang (Kyungsung University), Hyon-Sob Kim (Korea University), Jin-Ho Park (Inha University), John Peponis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Hayub Song (Chung-Ang University) \*alphabetical order by surname

# SPACE PEER REVIEW

## SPACE 피어 리뷰

「SPACE(공간)」는 게재를 의뢰한 국내의 모든 건축 작품에 대해 피어 리뷰를 진행하여 작품 게재를 공정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SPACE」의 피어 리뷰는 매달 1회, 2~3명의 리뷰어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로 내부에서 진행되며, 작품 외 투고자의 어떤 정보도 리뷰어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works of architecture submitted to SPACE as feature proposals will undergo the SPACE peer review system, in order to uphold a more diverse, professional and fair system of judgment when selecting featured works. Each month, all submitted works will undergo a blind test by two to three individual reviewers, with the strict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any other information than that of the actual work of architecture.

## SPACE Peer Reviewer Pool

곽희수(이မ်도시건축), 김광현(서울대학교), 김병운(대전대학교), 김종호(디자인 스튜디오), 김준성(건국대학교), 김찬중(더\_시스템랩), 김태만(해안건축), 김태철(동아대학교), 문훈(문훈발전소), 박인수(파크이즈건축), 배병길(배병길건축), 손진(이손건축), 우승현(홍익대학교), 이민아(협동원), 이은석(경희대학교), 이충기(서울시립대학교), 임재용(O.C.A건축), 조남호(솔토건축), 조민석(마스터디스),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조성룡(성균건축도시설계원), 천의영(경기대학교)

\*이름은 성 순으로 정렬

Kwak Heesoo (IDMM Architects), Kim Kwang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Byungyoon (Daejeon University), Kim Jongho (Design Studio), Kim Junsung (Konkuk University), Kim Chanjoong (The\_System Lab), Kim Taeman (HAEAHN architecture), Kim Taecheol (Dong-A University), Moon Hoon (Moonbalsoo), Park Insoo (PARKiz Architects), Bae Byungkil (Architect Bae Byung-Kil), Son Jin (ison architects), Woo Seunghyun (Hongik University), Lee Minah (hyupdongone), Lee Eunseok (Kyung Hee University), Lee Chungkee (University of Seoul), Lim Jaeyong (Office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Cho Namho (Soltos Architects), Cho Minsuk (Mass Studies), Byoung Cho (BCHO Architects Associates), Joh Sung-Yong (SungKyun Architecture institute), Chun Euiyoung (Kyonggi University)  
\*Korean alphabetical order by surname

# SPACE

FRAME 삶을 말하는 다른 방식: 삶것 ART PRISM 상하이 프로젝트 <인비전 2116>, 2016 광주비엔날레 & 부산비엔날레 & 미디어시티서울, 아티스트 에두아르도 나바로

PROJECT 마네티 쉼럼 뮤지엄, 하우스 원 CRITIQUE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 광안리 주택

REPORT 성곽마을: 도심 주거지 재생사업의 재발견, 우리 근대건축의 오미주: <건축 40년, 시대를 담다>, 직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직지, 금빛 씨앗>

